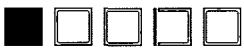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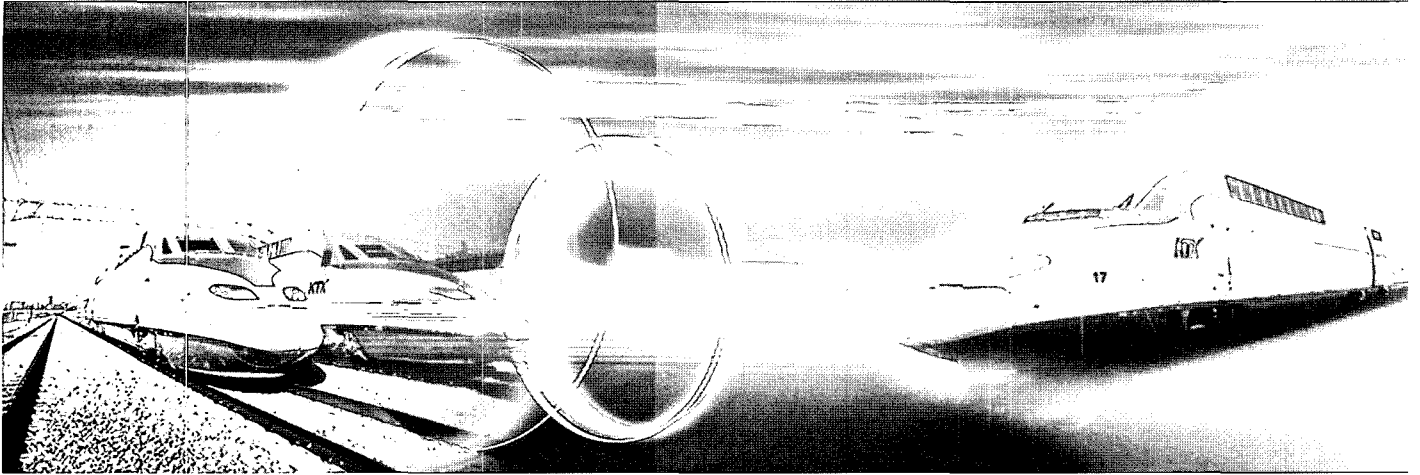


차량기계분과 세미나



차량기계분과 세미나 결과보고



홍용기 | 총무이사

지난 2005. 07. 01(금) ~ 07. 02(토)(1박 2일)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고속철도차량관리단 강당에서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인 운용 방안”의 주제로 차량기계분과 세미나가 철도차량관련기관 및 기업체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부 차량기계분과 위원장(인하대 교수) 진행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에 앞서 송달호 학회장의 축사와 분과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고속철도 운영현황(임병옥,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본부장)과 부산고속철도차량관리단 현황(김성권, 한국철도공사 부산차량관리단장)발표가 있었으며,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철도산업기술정책	이종국(건설교통부철도산업과장)	임병옥(한국철도공사차량사업본부장)
한국고속철도차량(KTX)의 장래 보수품 공급과 품질관리	강길현(서울철도차량 관리단장)	김진성(로테코 이사장)
소음진동 현황 및 개선대책	최강윤(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부장)	김정태(홍익대학교 교수)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기술	이희성(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송달호(한국철도학회장)
고속철도차량 부품 국산화 방안	이상길(로템 기술연구소장)	김정수(홍익대학교 교수)
시운전 시험 및 결과(350km를 중심으로)	강신구(건설교통부 고속철도시운전단장)	김기현(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

차량기계분과 세미나가 처음 열린 세미나에서 “고속철도차량의 안정적 운용 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발표와 발전적인 열띤 토론이 이루어져 참석자들 모두 만족해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분과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하였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술정책” 발표에서 이종국 철도산업과장은 건교부에서 철도산업기술트리를 만들고 철도차량산업의 육성 및 철도 R&D 혁신적 추진을 위해 철도차량수급 증장기 계획과 실용화 위주의 R&D 관리체계 구축해 나아갈 것임을 밝혔다.

“한국고속철도차량(KTX)의 장래 보수품 공급과 품질관리” 주제발표에 나선 강길현 서울철도차량관리단장은 종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많은 인력과 철도차량검정사 직원 제작사 기술진이 상호 보완 검증하던 시스템에서 한국철도공사라는 단일 기관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교체 부품의 품질관리는 철저한 과학적인 검증과 제도적인 안전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김진성(로테코 이사장) 토론자는 고속철도차량에 소요되는 보수품은 순정부품을 능가할 수 있는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 조달되어야 안정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소음진동 현황 및 개선대책”에서 최강윤 박사는 진동측정결과 차체좌우 0.26m/s/s(기준2.5m/s/s)이며, 터널주행 중의 갱웨이 및 객실소음저감을 위해 Mud-Flap 변경한 차량의 소음측정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차륜-레일 인터페이스 기술” 발표에서 이희성 교수는 차륜과 레일의 인터페이스 기술적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 운영 기관, 시설기관, 제작사, 연구소 등이 참가하여 관련 차륜/레일 인터페이스문제를 체계적 해결, 개선 및 관리하는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속철도차량부품 국산화 방안”에서 이상길 로템 기술연구소장은 현재, 외국기술에 의존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부품 중 하자보증기간 이후의 국내기술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개량을 고려하여 국산화 품목선정하고 국산화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정수 교수는 국산화개발은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가격경쟁력과 기술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부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운전 시험 및 결과(350km를 중심으로)”에서 강신구 건교부 시운전단장은 지난 12월 16일 350km/h를 성공적으로 돌파하여 지금까지의 시운전은 '05.6.23 기준으로 총 209회, 주행키로 93,000km, 최고속도 : 350km/h, 매주 4회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며, 최고속도까지 증속시험하여 결과가 양호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기환 박사는 시험 데이터의 종합적인 관리 및 분석기법의 개발과 기술개발이나 혹은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방법, 전차선 마모나 궤도틀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철도청이 공사화되고 건설교통부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운영체제 개편과 철도안전법 등 많은 법과 규정 등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는 체계적인 차량의 운영, 안전, 유지보수, 부품의 공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기계분과세미나는 철도시설공단, 지하철운영기관, 기업 등에서도 많이 참석하여 발전적인 의견들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참석자들의 주문이 있었다. 이에 송달호 학회장과 김창부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6개 주제 중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4개의 발표 자료를 게재하였다.